

‘골프여제’ 박인비 싱가포르 출격... 타이틀 방어 나선다



‘골프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7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복귀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 탄중 코스(파72·6718야드)에서 열리는 HSBC 위민스 챔피언십

내달 1일부터 HSBC 위민스 출전... 지난해 유일 우승한 대회
톱랭거들 출전... 박성현·유소연·전인지·김인경 첫 승 도전

‘총상금 150만 달러’에 참가한다. 박인비는 지난해 8월 ‘브리티시 여자오픈’ 도중 허리부상이 재발하며 일찌감치 시즌을 접었다. 치료와 재활에 주력한 박인비는 지난달 초 미국으로 가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박인비에게 이 대회는 특별하다. 지난해 유일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대회다. 2016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 획득 이후 부상으로 한 동안 골프채를 낀 박인비는 복귀 두 번째 대회인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5년에는 나흘 동안 72홀 노보기 기록을 세우며 당시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한 좋은 기억이 있다.

박인비는 메이저 대회 7승을 포함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무려 18승을 기록 중이다. 최연소로 LPGA 명예의전당에 입성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골프 사상 첫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의 주인공이 됐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다.

박인비가 건강한 모습으로 타이

틀 방어를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즌 초반 태극낭자 군단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도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 여자골프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 LPGA 투어에서 15승을 합작하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했다. 올 시즌에는 지난해 이렇듯 이렇듯 루지 못한 역대 최다승 기록을 갈아 치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올 시즌 3개 대회에서 2승을 미국에 내줬다. 초반 주도권을 내주는 모양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주 ‘혼다

LPGA 타이틀랜드’와 마찬가지로 세계 톱랭커들이 출전한다. 랭킹 상위 20명 중 18명이 나온다. 전체 63명의 선수 중 한국 선수는 가장 많은 16명이다.

박성현(25·KEB하나은행), 유소연(28·메디힐), 전인지(24·KB금융그룹), 김인경(30·한화)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데뷔전 우승과 함께 두 대회 연속 톱10에 오르며 연착륙에 성공한 고진영(23·하이트진로)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를 대표해 최혜진(19·롯데)이 나선다.

미국도 랭킹 1위를 노리는 렉시 톰슨, 개막전 우승자 브리타니 린 시킴, 혼다 타이틀랜드에서 깜짝 우승을 한 제시카 코다 등이 출동해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뉴시스

오승환, 토론토 行 “첫 한국인... 팀 보탬되도록 최선”

구단 제시 기준 채우면 2019년 계약 연장



오승환(36)이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박리거 생활을 이어간다.

오승환의 에이전사인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은 27일(한국시간) “오승환이 토론토와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은 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 1+1년에 2019년 팀 옵션’이라는 것만 공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승환은 최대 750만 달러(약 80억2000만원)에 계약했다. 2018년 200만 달러를 보장 받고 인센티브는 150만 달러다. 올해 구단이 정한 기준을 채우면 내년까지 토론토에서 뛰게 되며 연봉

250만 달러, 인센티브 15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오승환은 “토론토와 계약하게 돼 기쁘다. 토론토는 나의 경력을 존중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나를 꼭 필요로 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줘 마음을 굳혔다”며 “토론토에 빨리 합류해 훈련을 하면서 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토에 약 12만명의 한국 교민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토론토 소속 첫 한국인 선수인만큼 한국 교민들의 응원도 기대된다”며 “그 응원에 부합하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승환은 28일부터 토론토 스포팅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계약이 만료된 오승환은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

을 입을 전망이다.

현지 미디어는 “오승환이 텍사스와 1+1년, 총액 95만 달러(약 98억9000만원)에 계약에 합의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하지만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팔꿈치에 염증이 발견되면서 계약이 불발됐다. 오승환 측은 2014년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2016년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할 때에도 있었던 염증이 공을 던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온 오승환은 결국 토론토 유니폼을 입게 됐다.

2016년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오승환은 2년간 138경기에 등판해 1399임을 소화하며 7승 9패 21홀드 39세이브 평균자책점 2.85의 성적을 거뒀다.

메이저리그 정성급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고 있어 오승환은 셋업맨으로 될 전망이다.



민유라·젬린, 심성도 국가대표
“후원금, 마음만 받겠다”

“초심 잃지 않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에 참가한 민유라(23)가 후원금을 마음대로 받겠다(www.gofundme.com)에 개설한 계정(www.gofundme.com)에 개설한 계정으로 후원금이 채워졌다.

이들은 목표액을 5만달러로 잡았다가 10만달러로 늘렸지만, 이미저출액 넘어섰다. 27일 오전까지 12만달러(약 1억2900만원) 이상 모였다.

민유라는 알렉산더 젬린(25)과 조를 이뤄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아이스댄스에 나섰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피겨 아이스댄스에 출전한 것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의 양태화·이천군 조 이후 16년 만이다.

성적은 메달권과 거리가 있었다. 민유라와 젬린은 최종 18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은 프리댄스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가수 소향의 ‘홀로아리랑’에 맞춰 연기, 감동을 선사

했다.

바로 감동 연기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민유라와 젬린이 재정적 어려움을 탓에 2016년 12월4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www.gofundme.com)에 개설한 계정으로 후원금이 채워졌다.

이들은 목표액을 5만달러로 잡았다가 10만달러로 늘렸지만, 이미저출액 넘어섰다. 27일 오전까지 12만달러(약 1억2900만원) 이상 모였다.

민유라는 “후원금이 너무 많으면 게을러지고,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없어진다고 부모님이 걱정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민유라는 대통령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민유라·젬린에게 500달러씩 1000달러를 후원했다.

뉴시스

“500경기 출장, 우승트로피 3개 목표”

전북 이동국 출사표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39)이 통산 500경기 출장과 트로피 3개 대회 우승을 시즌 목표로 내세웠다.

이동국은 27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마련된 2018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전북은 팬들에게 언제나부터 우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팀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수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3개 트로피(챔피언스리그·K리그1·FA컵)를 모두 들고 올 수 있



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1998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데뷔한 이동국은 K리그 통산 500경기

는 농담을 던졌다. “최근 몇 시즌 전부터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다. 올해 첫 경기를 잘 했다. 마무리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1998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데뷔한 이동국은 K리그 통산 500경기



전남드래곤즈, 공격력·수비력 강화위해
스트라이커 완델손D·센터백 가솔현 영입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공격력과 수비력 강화를 위해 완델손D와 가솔현을 영입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자일 선수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난 시즌 공주에서 뛰었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완델손D(Wanderson de macedo costa)를 영입했으며, 중앙 수비 강화를 위해 한수원을 내셔널리그 우승으로 이끈 센터백 가솔현 선수를 영입했다.

순간스피드를 이용한 골 에어리어에서의 일대일 돌파 수비 뒷공간 침투, 패스능력이 뛰어난 완델손 선수는 2017 시즌 상반기 브라질 주 리그 파라리바 컵 대회에서 나서 16경기 8골 12도움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는 K리그에 데뷔 18경기에 출전하여 8득점을 기록했다.

또한 재공권을 바탕으로 안정적 수비를 자랑하는 가솔현 선수는 지난 시즌 인양에서 한수원으로 임대되어 19경기(2득점)를 소화하며 팀의 주축선수로 한수원을 내셔널리그 우승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유상철 감독은 “완델손의 합류로 공격력이 한층 더 강화된



만큼 하태균과 함께 전남의 공격이 더 폭발력을 가질 것이고, 더 불어 꾸준한 경험속에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는 가솔현의 영입으로 수비가 탄탄해졌으며 수비수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이라고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완델손D는 “전남은 가족같은 분위기로 들었다. 실제로 감독님과 선수들이 잘 해주셔서 편하다. 올해 K리그에서 2번째 해인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솔현 선수도 “이제야, 이경렬, 고태원, 토미 등 전남의 중앙 수비가 강하다. 우선은 주전을 빼치는게 목표다. 그리고 경기에 나간다면 팀워크로 매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태국과 중국 전지훈련을 통해 시즌 출격 준비를 마친 전남드래곤즈는 오는 3월 1일 수원과의 원정경기로 2018 시즌을 시작한다.

김승호 전남동부체육본부장

“언젠가부터 전북, 우승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팀”
통산 500경기 31경기 남은 469경기 출장해
도움 9개 추가하면 역대 최초 80-80클럽 가입

도록 노력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시즌 K리그 챔피언 전북은 기존의 우승 자원이 잔류한 가운데 아드리아노, 티아고, 손준호, 홍정호 등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을 강력한 1강으로 꼽는다. 우리나라로 마흔살이 된 이동국도 여전히 한 축을 담당한다. 지난해 K리그 최초로 통산 200호골을 터뜨린 이동국은 전북과 계약이 끝났지만 1년 재계약을 통해 녹색 유니폼을 계속 입게 됐다.

미디어데이에는 보봉 팀을 상징하는 주요 선수가 참석한다.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 중 하나지만 이동국은 참석할 적이 없다.

“마흔이 돼야 불러주는 것 같다”

뉴시스

출전에 도전한다. 현재까지 469경기 출장했고, 31경기가 남았다.

이동국은 “500경기까지 31경기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출장 경기수는 선수가 착실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며 “15년 이상 매해 30경기 이상을 뛰어야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두 자릿수 득점도 도전하겠다. 부상만 없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이동국은 2009년부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도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면 10년 연속이다.

또 통산 202골 71도움인데, 도움을 9개만 추가하면 K리그 최초로 80-80클럽 가입선수가 된다.

일본 야구천재 오타니, 데뷔전서 맹활약

투타겸업 빅리그 타자 데뷔전 1안타1타점2볼넷

일본의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메이저리그 타자 데뷔전에서 맹활약했다.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1타수 1안타 1타점 2볼넷을 기록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투수와 타자를 병행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오타니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투타 겸업을 선언했다.

25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투수 데뷔전을 치른 오타니는 1%이닝 2피안타(1홈런) 2실점(1자책점) 1볼넷 2탈삼진으로 아쉬운 투구를 했다.

그러나 타자로는 100% 출루하며



재능을 과시했다. 1회초 상대 우완 투수 조던 라일리를 상대로 볼넷을 얻어낸 오타니는 3회에는 바뀐 투수 버디 비우먼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냈다. 오타니는 5회 1사 2루의 찬스에서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 타점도 올렸다. 5회말 수비 때 잭 크루저와 교체됐다.

한편 에인절스는 샌디에이고에게 4-10으로 패배, 시범경기 전적 2승2패를 기록하게 됐다. 샌디에이고는 시범경기 첫 승(3패)을 따냈다.